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자료 : 산업자원부)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 나라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10년의 정책시계를 가지고 수립되며,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작년 9월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여 작성한 「2010 에너지비전: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산업의 세계화·민영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대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에너지 여건 변화 및 소비 전망

국내외 에너지시장은 세계화와 민영화, 지속가능 발전의 추구, 그리고 급속한 기술개발과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부상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 총소비도 연평균 3.5% 증가하여 2011년에는 2억 8천만TO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에너지정책의 기초변화와 목표

정부가 직접 개입하던 에너지수급 및 가격 결정을 민간 부문의 자율적 시장참여로 조절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일정에 따라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2011년까지의 에너지 총소비 증가율이 추세 전망치보다 0.4% 개선된 연평균 3.1%로 낮출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 4대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 1.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하는데 힘쓴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며, 11개 탄광(2001년 기준) 중 3~4개 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하여 2005년부터 300만톤 내외에서 수급균형을 유지,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과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시스템을 확립하여 에너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3.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

기술개발 대상 과제중 전략적 중요성에 입각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Roadmap”을 작성 에너지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개발 에너지기술과 원전시공 능력, 전력산업기술, 그리고 플랜트 건설시 습득한 설비 제조능력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한다.

**4. 대외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로 부상**

IEA, APEC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 증대,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자원·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 에너지부문의 남북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한 통합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저감하였다.

**■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1. 석유**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원유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정제시설의 고도화 및 비축시설

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며, 해외 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에너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2. 가스**

천연가스(LNG)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의 가스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인수기지 등 공급시설을 확충하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소매부문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가격자유화를 추진한다.

**3. 전력**

발전·배전부문을 분할하여 민영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을 조성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전력공급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수요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원자력발전을 중장기 전력안보의 핵심분야로 활용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4. 석탄**

국내 무연탄 수요의 감소에 따른 합리적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석탄관련 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산업 및 발전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연탄의 해외수입 개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해외개발 유연탄의 국내 도입을 촉진한다.

**5.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0년까지 5%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우선 구매 및 차액보전제도 등 시장기반 조성을 강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체계화하며, 2011년까지 태양광 3만호 보급 및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100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